금주의 법구-〈법구경〉
욕망의 숲을 자르고
욕망서 벗어난 자가 되어라.
그리고 영원한 자유를 찾아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41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4월 8일) 2021년 5월 19일 수요일



코로나도 악천후도 부처님오신날을 찬탄하며 국난극복을 염원하는 불자들의 원력을 꺾지 못했다. 2년만에 열린 연등회서 불자들은 조계사 일대서 연등을 들고 거리에 나섰고, 언택트로 연결된 전국불자들은 한마음으로 함께 했다. 박재완 기자

코로나·우천에도 '연등회' 불 밝혔다

봉축위, 5월 15일 부처님오신날 연등회 봉행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코로나19도 우천도 부처님오신날을 찬탄하기 위한 사부대중의 원력과 환희심은 막을 수 없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와 연등회 보존위원회는 5월 15일 '불기 2565(2021)년 연등회'를 서울 종로 조계사 일원에서 봉행했다. 시작은 조계사 앞마당 특설무대에서 봉행된 연등법회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기념식이 알렸다. 이날 연등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며,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연등법회는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장 원행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한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정사 등 내외빈들의 '희망과 치유의 등공양'으로 시작됐다.

원행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불기 2565년 연등회는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되어 첫해를 맞이하는 특별한 날"이라며 "연등회 안에 함께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자발적 참여 정신은 전 세계적인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아가기 위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연등회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축하하기 위한 '유네스코 등재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김현모 문화재청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에게 유네스코 등재 인증서를 전달했다.

원행 스님은 등재 기념사를 통해 "등을 밝혀 지혜와 자비로 행복한 세상을 기원하는 연등회는 천년 이상 이어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이며 축제"라며 "세대전승을 온전히 지켜온 소중한 우리의 문화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계기로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후대에 잘 이어지도록 연등회의 보존과 전승에 더욱더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네스코 등재 기념식에서 김현모 문화재청장이 원행 스님에게 등재 인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상 최초 '언택트 연등회'
참여 단체 줌 접속해 동참
인류무형유산 등재축하도

인증서를 전달한 김현모 청장은 "2012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이후 8년만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됐다. 인종, 종교, 나이, 성별을 뛰어넘은 세계인의 축제로 인정을 받은 것"이라며 "문화재청도 연등회의 가치를 보존 위하기 위해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계·연예계 등 각계 인사의 동영상 축사도 이어졌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연등회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는 한국이 문화 일류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축하했으며 이원욱 국회 정각회장은 "연등회가 세계인이 인정하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이 됐다. 어려운 이웃의 희망이 되어주는 축제로 보존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연등법회와 유네스코 등재 기념식 이후에는 연등회의 하이라이트인 제등행렬이 축소·진행됐다. 행렬은 조계사 일주문부터 안국사거리-공평사거리를 순회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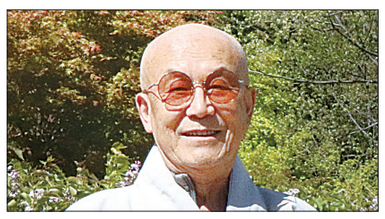
2021년 봉축특집호
A·B·C 섹션 76면 발행

봉축특집
대전환, 찾아가는 불교 A10·11·14·15·1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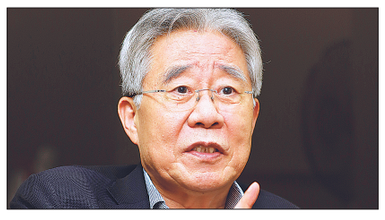
평등 일구는 사람들 B1·2·3·6·7

기록으로 본 연등회 B12·13

데스크초대석 A5
제주 원명선원 한주인 대표 스님



리더에게 聽하다 C1·2
함승희 대륙아주 고문변호사



각 종단 봉축법어·봉축사 A7·8

봉축시방세계 A21
마산 반야불교학당 경전 강의 현장

봉축포토절소리 B21

봉축동화 B23
우승미의 '지금 여기 너와 나'